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그린을 입다

블랙, 메테오 그레이, 블루로 선보인 바 있는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Fifty Fathoms Bathyscaphe Flyback)이 그린 컬러를 입는다. 자연의 색깔을 담은 이 새로운 타임피스에는 물 속, 땅 위, 하늘 위 그 어디에나 어울리는 이상적인 시계다.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다이버 워치는 블랑팡의 머스트 해브 워치 중 하나다. 탁월한 성능과 견고함, 컬렉션의 DNA 를 고수하면서 시간이 흐르며 진화해온 유니크한 스타일에서 고유의 오라가 느껴진다. 다이얼 제작 면에서 비길 데 없는 전문 지식과 기술로 강화된 새로운 바티스카프는 다이얼에서부터 베젤까지 그린 컬러를 입은 크로노그래프 버전으로 선보여진다. 블랑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이얼 메이킹 노하우와 기술을 통해 트로피컬 컬러를 재현해냈다.

완벽한 컬러와 피니싱을 얻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컬러를 찾아내기 위한 오랜 연구 개발 단계는 물론 수십 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형태, 창(aperture)과 관련한 초기 단계가 마무리되면 두 단계에 걸쳐 다이얼을 폴리싱 작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크래치를 제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낸다. 이후 다이얼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선을 새기는 선버스트 기법 등 표면에 특별한 텍스처를 부여하는 일련의 공정 과정이 이어진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비워내고 깊이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네일 처리한다. 이제서야 비로소 고도의 기술적인 컬러링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것. 다이얼에 여러 겹의 나노미터 단위 물질로 코팅을 입히면 표면 텍스처에 의해 이것이 변형되며 빛이 원하는 컬러를 반사한다. 드디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이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고 때로 메탈릭한 컬러를 발산하는 섬세한 그린 컬러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을 통해 보이는 타임피스의 심장인 매뉴팩처 F385 칼리버 역시 이러한 매력적인 컬러, 표면, 텍스처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진동수 5Hz 로 박동하며 1 초를 1/10 간격으로 쪼개 0.1 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다. 이러한 고진동이 특히 시간을 측정할 때 정확성을 높여준다. F385 무브먼트는 버티컬 클러치와 칼럼휠이 관장하는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4 시 방향에 자리한 푸시 피스를 누르는 것만으로 크로노그래프를 즉시 원점으로 리셋해 바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플라이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은 43.6mm 사이즈의 새틴-브러싱 블랙 세라믹 케이스 위에 그린 세라믹 인서트를 갖춘 로테이팅 베젤을 올렸다. NATO 스트랩 혹은 세일 캔버스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